

# R&L, 미국 줄기세포센터 준공

## 셀텍스와 공동 설립 ... 연간 1만명 줄기세포 보관·배양

R&L바이오가 미국에 대형 줄기세포센터를 준공했다.

성체줄기세포 전문기업인 R&L바이오는 연간 1만명 이상의 줄기세포를 보관하고 배양할 수 있는 GMP(우수 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) 시설인 <제2 GMP 메인 생산센터>를 미국 텍사스(Texas)의 슈거랜드(Sugar Land)에 준공했다고 12월16일 발표했다.



R&L바이오가 설립한 <GMP 메인 생산센터>

센터는 R&L바이오가 줄기세포 관련기술을 이전한 셀텍스 테라퓨틱스(Celltex Therapeutics)와 공동으로 1900 m<sup>2</sup> 부지에 건설했으며, 12월16일 텍사스 주정부 토마스 수에스(Thomas Suehs) 보건복지 총책임자와 데이비드 G. 엘러(David G. Eller) 셀텍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진행했다.

셀텍스와 R&L바이오는 GMP센터를 활용해 북미시장 최대의 성체줄기세포 치료의 중심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.

셀텍스의 엘러 대표는 “센터 출범을 통해 파킨슨병과 치매, 자가면역질환 등 현대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희귀 난치병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”이라고 기대했다.

R&L바이오의 라정찬 줄기세포기술원장은 “앞으로 남미, 유럽 등 전 세계로 진출해 국내의 줄기세포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”고 강조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1/12/16>